

함께 나누며 더불어 만들어가는 즐거운 학교	 <b>가정통신</b>	전주시 덕진구 천마산로 69
http://www.jj-osong.ms.kr		063) 250-4301
제목	<b>‘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b>	

꽃잎이 피고 새싹이 새롭게 자라나는 3월입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이고, 새 학년 적응기를 거치면서 아이들의 학교생활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배부해 드리는 안전교육 자료를 토대로 가정에서의 안전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가족 모두가 안전생활을 위한 대화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 유형별 안전 관리 요령 ]

유 형	안전 관리 요령
보건	<b>철과상 시의 응급처치 방법</b> ⇒ 상처를 흐르는 식염수나 물로 깨끗이 씻도록 한다. 세척액의 세포손상 정도 : 알콜100% 포비돈요오드5% 수돗물5% 식염수0%
교통	<b>횡단보도 안전 수칙</b> ⇒ 횡단보도의 우측으로 건너기,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건너기 길을 걸으며 이어폰 및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
	<b>뒷좌석 안전띠 매기</b> ⇒ 뒷좌석이 안전띠 착용은 앞으로 튕겨져 앞좌석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덮치는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따돌림피해 예방	<p>우리 아이 따돌림 피해 예방을 위한 현명한 양육법</p> <p>아이를 집단 따돌림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다양한 역량을 스스로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p> <p>첫째, 어려서부터 또래 관계를 스스로 맺고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터득하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먼저 나서서 아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려고 하면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과잉보호적인 양육 방식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p> <p>둘째, 아이가 자기주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항상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며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이의 자기주장 능력이 제대로 발달하기 어렵습니다.</p> <p>셋째, 아이가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때는 단호하게 제지시켜야 합니다.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치했다가 습관적인 행동 특성으로 발전할 경우, 친구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p> <p>넷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해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아이들은 또래 아이들로부터 부정적인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출처] [손석한 박사의 부모특강] 새 학기 우려되는 집단 따돌림 - 따돌림 피해 예방을 위한 자녀 양육법   작성자 연세우유라이프연구소</p>

2019. 3. 12.

**전 주 오 송 중 학 교 장** [관인생략]

## 「우리집 안전점검 리스트」

분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
건물	건물에서 수시로 ‘턱턱’소리가 들리는 등 균열현상은 없는가?	
	벽지가 찢어지거나 화장실 타일에 균열이 있는가?	
	옥상에 과하중의 물건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가?	
	창문의 여닫힘 상태가 좋은가?	
	아파트 베란다 난간 등 위험한 상태는 없는가?	
	시설물 주변이나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는 좋은가?	
	콘크리트 구조에 균열, 누수, 철근 노출은 없는가?	
가스	가스렌지 밸브는 완전히 잠겨 있는가?	
	월 1회 가스가 새는지 비눗물과 점검액으로 점검하는가?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 가스통을 보관하는가?	
	가스보일러의 홈.배기구시설 설치 상태는 양호한가?	
	경보기 등은 정상 작동하는가?	
	가스밸브 및 배관은 녹슬지 않았는가?	
전기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정상 작동시험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가?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기구를 사용하지는 않는가?	
	손상된 코드선, 피복이 벗겨진 전선을 사용하지는 않는가?	
기타	소화기를 1대씩 비치하고 작동요령을 알고 있는가?	
	화기 주변에 인화성 물질 등을 내버려두고 있지 않은가?	
	구급상자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 두는가?	
	라이터, 성냥, 약물, 칼 등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는가?	
	높은 곳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 않는가?	
	목욕탕 등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는 하였는가?	
	유해물지(인화성, 유독물질 등)을 내려버려 두지 않았는가?	
	문, 책상, 가구 등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